

會 長 基 調 演 說

李 燦

大韓地理學會는 1945年 이래 우리나라 地理學徒들의 學術活動의 中心體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제 어언 30周年을 맞게되어 지금까지의 學會內外活動을 돌이켜 보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座標를 再確認함으로써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韓國地理學 30周年 심포지움은 우리들의 過去를 위한 討論과 기록을 남기는 것과 韓國地理學者들이 解決하려는 문제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를 解決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시사를 주려는데 焦點을 두고 있다.

(1) 中等教師 中心의 朝鮮地理學會 發足

大韓地理學會의 前身인 朝鮮地理學會는 1945年 9月 11日 서울시 壽松洞에 位置하는 中東學校에서 創立總會를 가졌으며 1949년에 현재의 名稱인 大韓地理學會로 改稱할 때까지 계속되었다¹⁾. 當時 城南中高等學校 教師였던 盧道錫先生的 주선으로 모이게된 創立總會에는 約 20名の 中等學校 地理教師와 當時 大學에 關係를 가지고 있었던 陸芝修, 金鍾遠²⁾ 교수등이 참석하였다. 大學이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또 日帝時代에 地理學科가 당시의 京城大學 또는 延禧專門學校와 普成專門學校에 없었던 관계로 당연한 出發이었다. 初代 會長에는 當時 휘문 중·고등학교 교사였던 金道泰 先生이 취임하였고 뒤에 金鍾遠, 陸芝修 교수 등이 副會長에 취임하였다.

學會의 첫 事業은 中等學校 地理教授 要目的 作成이었다. 1945年 10月 下旬에 城南中學校에 모여 “韓國地理教授要目”을 감정적으로 작성하여 各學校에 配付한 것이 첫 事業이었다. 發起人의 한사람이었던 盧道錫교수의 回顧에 의하면 첫 研究發表會는 1947年 4月 初旬에 景福中學校에서 있었고 그 내용이 1947年 5月 12.13 兩日에 걸쳐 서울新聞

에 게재되었다. 學會를 구성하는 會員의 대부분이 中學教育에 종사하는 교사였지만 研究發表會 내용은 地理教育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 보다도 地理學自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發表는 一般論이나 啓蒙的인 題目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25 事變이후 釜山에서의 學會活動은 더욱 침체되었고 收復이후에도 별다른 發展을 보지 못하였다.

(2) 大學 地理學科의 創設과 地理學人口의 增加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代에는 서울大學校와 慶北大學校의 師大에 창설된 中等教師養成을 主目的으로 하는 地理科가 있었을 뿐이다. 이 2개의 地理科는 社會科學科, 社會生活科, 地理科, 社會科, 社會教育科등 여러번의 科目名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學科名의 변동은 師範大學에 관한 大學政策의 변동과 中等學校의 教育課程 변동에 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學科名의 변동은 있었으나 그 內容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창설 당시부터 獨立된 教育課程과 교수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면 學問的인 面과 地理教育的인 2面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2개 학과는 1950年 後半期에까지 大學에서의 地理學 專攻者 教育을 독자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學問的인 面과 教育的인 面의 兩面에 힘써야 하는 것이 當然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歷史的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울大와 慶北大의 師大地理科 出身은 初創期 韓國 地理學 발달에 主役을 맡게 되었고 현재 全國 大學에서 地理學을 담당하고 있는 教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大 師大의 李智皓 교수, 慶北大 師大의 洪慶姬 교수는 각각 地理科의 창설자이며 후배 양성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一般大學에서 學問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地理學科

地理學科 및 地理教育專攻 學生入學 定員

區 分	1950	1960	1970	1975
地理學科				
서울大 文理科大學(1958)		20	20	20
경북大 文理科大學(1962)		20	20	20
建國大 文理科大學(1960)		20	20	20
경희大 文理科大學(1958)		30	30	30
小 計		90	90	90
社會教育科地理專攻				
서울大 師大(1946)	20	20	30	30
경북大 師大(1947)	20	20	20	20
梨花女大 師(1951)		20	20	20
公州 師大(1960)		20	20	20
東國大 師大(1969)			10	30
誠信女 師大(1972)				30
清州大學(1971)				20
清州女師大(1975)				30
祥明女師大(1973)				30
효성여자대학(1973)				20
釜山女師大(1975)				
小 計	40	80	100	390

가 設創되기 시작한 것은 1950年代 後半期이다(表 1참조). 1958년에 서울大 文理大와 경희大學校의 文理大에 地理學科가 同時에 設立되었고 慶北大學校 文理大와 建國大學校에 地理學科가 생긴 것은 1960년 이후이다. 一般大學의 學科創設을 위해 서울大의 陸芝修 교수, 경희대의 朴魯植 교수, 建國大의 李鳳秀 교수의 勞苦는 地理學者 養成의 礎를 마련한 점에서 길이 記憶될 것이다.

大學에서의 地理專攻 入學生定員은 1950년에 40名에 불과하던것이 1960년에는 地理學科 90名, 社會教育科 地理專攻 80名으로 都合 170名으로 급증하였다. 1960년 이후에는 師範大學 地理教育 專攻學生定員단 增加를 보았으며 특히 1970年代에 들어서 社會教育科 地理專攻 학생정원의 현저한 증가를 보게 되었다. 大學에서의 地理學科의 增設과 學生數의 增加는 自然的으로 大學教授의 增加를 가져왔다. 大學에서의 地理學關係 教授 수의 增加 추세를 보면 1960년에 약 15名, 1970년에 약 50名으로 3배의 증가이고, 1975년에 약 70名으로 또다시 40%의 증가를 보았다. 1960年代의 지리학교수의 증가는 教育大學의 設立에 의한 것이고, 1970年代의 증가는 師大의 新設과 地理教育 關係의 科設置에 기인하는 것이다. 大學院에서의 地理學 研究는 1960年代 後半期부터 활발해졌으며 1970년 이후에 더

욱 활발해 졌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歷史가 오랜 서울大學校 大學院에서 過去 25年동안에 23名을 배출하였고, 서울大學校 教育대학원에서 과거 10年間に 26名을 배출하는데 이르렀다. 大學院 博士學位課程에서 學位를 취득한 자는 경희대학교에서 1名이 있을 뿐이나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1960

碩士學位 授與者數

	설립연도	碩士學位 70년까지	1971- 1975
서울大 大學院	1951	15	8
경북大 大學院	1951	10	6
경희大 大學院	1958	6	8
건국大 大學院	1963	2	9
梨花女大 大學院	1965	2	1
서울大 教育大學院	1964	10	16
경북大 教育大學院	1966		7
高大 教育大學院	1968	4	16
梨花女大 教育大學院	1966	1	9
慶熙大 教育大學院	1972		2

年代 후반기에서 부터의 大學 學部生 및 大學院生의 增加 및 教授 수의 증가는 地理學 人口의 漸增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學問活動이 활발해 졌다.

(3) 學會誌 地理學 發刊

1960年代에 들어서서 地理學人口의 팽창과 大學에서의 地理學교수의 증가는 學會誌의 發刊을 요구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李廷冕, 李燦 兩교수의 歸國은 外國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學會誌 發刊에 도움을 줄수 있었다.

學會誌 發刊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 첫째는 經費問題이고 둘째는 論文의 빈곤을 들수 있다. 1963년에 創刊號를 낸후 제 2호는 3年後인 1966년에 나왔다. 1968년 부터는 每年 1號씩 나오게 되고 1974년에 이르러 年 2회의 會誌를 낼 수 있게 되었다. 財源이 없는 學會인 관계로 大部分의 會誌를 中等學校 地理教科書 關係 出版社의 협조로 出刊하였다. 이러한 出版社의 도움을 얻는데 文教部 편수 관직에 오래 계셨던 李泳澤 校長의 수고는 높이 評價되어야 할것이다.

學會誌 1號에서 11號까지의 內容分析은 다음 <표 2>와 같다. 學問分野別로 論文數를 보면, 自然地理에서 地形學, 氣候學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人口 都市地理 분야가 論文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農業, 工業地理分野도 各各 8편으로 많

		1 (1963)	2 (66)	3 (68)	4 (69)	5 (70)	6 (71)	7 (72)	8 (73)	9 (74)	10 (74)	11 (75)	12 (75)	計
地	形	1	1	2			1	1	1		1		1	9
氣	候				2	2			1	1		1	1	8
취	락		1		1		1							3
人	口 · 都	2	1			1	2	1	2		1	1		11
農	業		2	1		2				2	1			8
工	業		1				1		1	2		3	1	9
文	化 · 歷	3		1	1						2		1	8
學	史	1			1	1								3
政	史				1			1						2
環	治				1			1						2
境	覺								1	1				2
地	圖	1										1		2
地	學			1										1
其	他	1		1			1		1			1		5
合	計	9	6	6	6	6	6	4	6	6	5	7	4	71
書	評	2	2		2	3	2	1	2	3	3	2	2	29

은 편이고 文化·歷史地理 분야, 學史 분야도 활발한 편이다. 學會의 出發이 地理教育이 主였고 아직도 會員의 大多數가 中等學校 教師임에도 불구하고 地理教育에 관한 論文은 1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地理教育에 관한 資料는 1969年 10월에 1호를 낸 會報에서 다루고 可能한 한 地理學 會誌는 學問의인 面에 集中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이다.

(4) 地理學의 社會에의 功獻

1945年 이전에 大學에서의 地理學의 位置는 重要視되지 않았고 中·高等學校의 教科로서 비교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事實은 1945年 當時 大學에서 地理學을 專攻한 사람의 수가 극히 적었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地理學이 大學에서 學問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1945年 이후이고 그것도 처음에는 教師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師範大學의 地理專攻에 불과하였다. 一般大學에 學科로서 버젓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58年에 비롯하니 學問으로서의 地理學이 우리 大學社會에서 認定을 받게 된 歷史는 20年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歷史의인 背景속에서 우리 先輩들이 쌓아올린 공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研究物이 될 수 없었고 不利한 條件에서의 後輩養成과 大學에서의 地位 확보에 있었다.

地理學徒의 學校 이외로의 進出은 1960年代 후반

기 부터의 일이고 政府機關, 言論機關, 一般社會로 점차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都市計劃, 地域開發, 地域計劃등에 많이 參與하게 되고 設部의 用役에도 점차 참여하고 있다.

1960年代에 美國地理學界에서 一大 革命을 가져온 計量革命은 1970年代에 이르러 우리 學會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地理學의 計量化, 특히 計量的 空間分析은 地域開發, 都市計劃, 産業立地, 人口移動등의 社會的인 問題를 解決하는데 큰 役割 擔當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地理學者들은 오랫동안 人間과 自然環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이 問題는 自然環境 自體를 연구하려는 自然地理學者들의 關心事인 동시에 人間에 의한 自然環境의 利用, 변모, 人間과 自然의 生態的인 調和등에 關心을 갖는 人文 또는 文化地理學者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人間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環境 問題는 地理學者들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問題解決에서 우리 學問이 공헌할 수 있는 部門은 넓고 또 중요한 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綜合的인 問題意識 밑에서 새로운 研究設計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歷史地理, 地理學史 分野는 최근에 몇몇 地理學者들에 의하여 研究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각에 불과하다. 時間的인 過程에서 우리 國土의 自然 및

文化景觀의 변천 및 復元을 대상으로 하는 歷史地理學은 우리 民族의 文化와 國土를 理解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分野에서는 隣接學問인 歷史學, 人類學 등과의 共同研究가 바람직하다.

地圖學, 航空寫眞, 遠隔探查는 地理學에서 공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重要한 分野이다. 地圖는 地理學者들의 獨占物은 아니다. 여러 學問에서 地圖를 이용하고 또 地圖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歷史的으로나 實地 利用面에서나 地理學者들 보다는도 地圖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學問分野는 없을 것이다. 이같이 重要한 分野임에도 불구하고 이 方面의 研究와 社會的인 進出이 아직 부진하다. 航空寫眞 方面에 地理學科 出身이 몇名 있기는 하나 國家的인 地圖製作 事業에는 아직 그 參與도가 매우 낮다. 人口 및 住宅 센서스에서 얻은 資料의 地圖化, 國土開發計劃의 地圖化, 國定地圖冊의 作成 등에 地理學者들의 參與와 공헌이 기대된다.

(5) 國際學會 活動

韓國 地理學者들의 國際活動은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大韓地理學會 會員으로 비교적 많은 人員이 國際學會에 參席한 것은 1957년에 東京에서 있었던 I.G.U 地域大會가 처음이었다. 이 會議에는 當時本會 會長이 었던 崔福鉉 교수와 朴魯植, 陸芝修, 金相昊, 洪慶姬 교수등이 參席하였다.

國際地理學聯合(IGU)에 韓國이 加入한 것은 1950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19次 國際地理學會議 때이다. I.G.U에 加入하기 위한 交信은 1957年 IGU 東京地域會議 이후에 이루어졌고 1960年 스톡

홀름大會에 金庚星 洪慶姬 兩교수가 이 회의에 韓國代表로 參席하였다. 1962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開催된 IGU 地域會議에 當時 慶熙大의 李廷冕 교수가 參席하였다. 1964年の 第 20次 IGU 총회에는 韓國代表는 한 사람도 參席을 못했고 다만 UNESCO에 근무하고 있는 金鍊觀氏가 地理教育分科에 參席하였을 뿐이다.

1968年 뉴우델리에서 개최된 第 21次 國際會議에는 韓國에서 李 燦, 金蓮玉 교수, 당시 말레이시아 大學에 在職中인 李廷冕 교수가 參席하였다. 1972년에 열린 第 22次 몬트리올大會에는 韓國에서 李智皓 교수, 美國에서 李廷冕 교수와 李琦錫 선생이 參席하였다.

IGU 分科委員會에서의 우리 나라 地理學者의 活動은 매우 미약하며 地理 教育分科에서 李 燦, 土地利用分科에서의 李廷冕 교수등이 活動하고 있다. 言語의 장벽과 參加旅費 출처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實情에서는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지 參席은 못하더라도 論文을 보내고 研究物을 교환하는 方法으로도 國際活動을 좀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大韓地理學會 會長, 서울大教授)

參 考 文 獻(註)

- 1) “學會沿革 및 近況”, 地理學 제 1호(1963), p. 114.
- 2) 陸芝修교수는 解放直前까지 平壤師範專門學校의 교수였고, 金鍾遠교수는 京城大學의 地質學科 教授였음.